

‘마이네임’ 김진민 PD “한소희 정말 열심히 해줬다”

남성 캐릭터 주를 이뤘던 액션 누아르 새 장 열어 ‘인간수업’ 차기작...넷플릭스와 또 한 번 손 잡아

전통 누아르극에 여성 캐릭터가 중심에 섰다. 1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한국 드라마 ‘마이 네임’은 배우 한소희를 앞세워 남성 캐릭터가 주를 이뤘던 액션 누아르의 새 장을 열었다.

‘마이 네임’을 연출한 김진민 PD는 18일 화상 인터뷰에서 “무모하기도 한 큰 도전이었지만 대본이 묵직했고,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이 굉장히 뚜렷해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파격적인 소재와 과감한 설정, 완성도 높은 연출로 호평받았던 ‘인간수업’을 연출한 김 PD는 차기작 ‘마이 네임’으로 넷플릭스와 또 한 번 손을 잡았다. 극본은 ‘히어로’와 ‘패밀리’의 김바다 작가가 썼다.

김 PD는 “작가님이 여성 누아르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이전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드라마를 해본 적이 있어서 남자 주인공이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돌아섰다.

‘마이 네임’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조직에 들어간 지우(한소희 분)가 새로운 이름으로 경찰에 잠입한 후 마주하는 냉혹한 진실과 복수를 그린다.

눈앞에서 아빠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가 속해 있던 조직에 일원으로 들어가 복수를 꿈꾸는 지우는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조직의 보스 무진(박희

순)의 제안으로,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오해진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경찰에 잠입한다.

언더커버를 소재로 한 복수극으로 여는 작품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다만 진부한 클리셰가 나열돼 이야기 전개가 다소 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PD는 “새로움보다는 언더커버물이 가진 매력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며 “아버지와 딸의 이중커버가 재밌는 부분도 있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드러내기 위해 클리셰를 활용했다. 각각의 캐릭터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변별력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주인공 지우를 연기한 한소희는 대역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액션신을 직접 소화했다. 강렬한 장면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통해 체중을 10kg을 증량하기도 했다.

김 PD는 “기획 단계부터 액션에 방점을 두고자 했다. 액션 장면이 워낙 많다 보니 다양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액션은 진행 순서대로 찍었는데 뒤로 갈수록 긴장이 풀려서 액션이 부드러워진 것 같다. 무엇보다 큰 부상 없이 계속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작업이었다”고 고마워했다.

한소희를 캐스팅한 데 대해서는 “배우는 외모 특성이 한계를 많이 규정

짓는데 소희씨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하고 싶다고 했다”며 “아름다운 역할을 할 기회는 많겠지만 이런 작품에서 몸을 던져볼 기회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줬다”고 극찬했다.

이날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패트론에 따르면 ‘마이 네임’은 한국에서 ‘오늘의 톱10’ 1위에 오른 데 이어 전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4위에 올랐다. 전날 6위보다 2계단 상승했다.

김 PD는 “액션물은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적다. 대중적인 소구력을 지닌 장르”라며 “액션을 할 것 같지 않은 배우가 앞으로 나아가는 면도 새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의 뒤를 이어 공개된 소감도 전했다.

김 PD는 “‘오징어 게임’ 이후에 선보이는 신작이어서 사실 부담감이 컸다”면서도 “한국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큰일을 해줘서 ‘오징어 게임’ 활동해 감독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갖게 되셨구나” 싶었다. 그동안 좋은 K-콘텐츠가 대접을 받지 못했던 현실이 아쉬웠다. 이제부터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았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이 작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받을 수 있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다”며 “초반 평가가 박하진 않아서 다행이다. 배우들이 정말 고생했는데 그것



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PD는 ‘개와 늑대의 시간’, ‘무신’, ‘인간수업’ 등 주로 선 굵은 작품의 연출을 맡아왔다. “로맨틱 코미디도 하고 싶다”고 웃

어 보인 그는 “작품을 선택할 때 재미보다 작가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다가간다. 스스로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겁없이 문제점을 짚는 것이 나의 단점이나 장점이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 12월 美 ‘징글볼 투어’ 합류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최대 연말 음악 축제 ‘2021 징글볼(2021 Jingle Ball) 투어’에 참여한다.

18일(현지시간) 주최사 미국 최대 라디오 네트워크인 아이하트라디오(iHeartRadio)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오는 12월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펼쳐지는 ‘2021 징글볼 투어’ 무대에 오른다.

방탄소년단 외에 에드 시러(Ed Sheeran), 두아 리파(Dua Lipa), 도자캣(Doja Cat), 릴 나스 엑스(Lil Nas X), 더 키드 라로이(The Kid LAROI), 블랙 아이드 피스(Black Eyed Peas)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에서 열린 ‘2019 징글볼 투어’에 참여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아이하트라디오 페스티벌 2020’에 출연한 바 있다.

‘징글볼 투어’는 아이하트라디오에서 매년 연말에 개최하는 음악 축제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올해 투어는 11월30일 델러스를 시작으로 12월19일까지 로스앤젤레스,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애틀랜타, 마이애미 등지에서 펼쳐진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11월 27~28일, 12월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엘에이(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를 개최한다.



장민호, 데뷔 24년만 첫 단독 콘서트 성료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 장민호가 데뷔 24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성료했다.

18일 소속사 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장민호는 지난 15일~17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콘서트 ‘드라마’를 열고 팬들과 만났다. 이번 공연은 예매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만큼 팬들의 호응이 컸다.

이번 공연에서 장민호는 ‘7번국도’, ‘남자 대 남자’, ‘연리지’, ‘남자는 말합시다’ 등을 비롯 다양한 메들리를 선사했다.

장민호는 소속사를 통해 “첫 번째 콘서트라 많이 긴장하고 설레기도 했는데 성황리에 끝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 특히 민호특공대(팬클럽)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라며 “앞으로 지방 투어를 통해서 또 인사드릴 수 있으니 좋은 모습 많이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SBS ‘왜 오수재인가’, 서현진·황인엽·허준호 캐스팅 확정

박수진 감독·신에 김지는 작가가 의기투합



‘왜 오수재인가’ 측이 서현진, 황인엽, 허준호를 캐스팅하고 촬영에 돌입한다.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SBS 새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는 성공만을 좇다 속이 텅 비어버린 차가운 변호사 오수재(서현진)와 그런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두렵지 않은 로스쿨 학생 공찬(황인엽)의 아프지만 설레는 이야기를 그린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 버린 두 사람, 깊은 나라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들의 이야기가 색다른 ‘미스터리 멜로(LAW)’의 탄생을 기대케 한다. 무엇보다 서현진, 황인엽, 허준호의 흥미로운 조합이 기대를 더한다.

서현진은 후회를 삼키고 독해진 스

타 변호사 ‘오수재’를 맡아 극을 이끌 예정이다.

오수재는 굴지의 TK로펌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이자 자타가 공인하는 원톱 에이스다. 상대를 불문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승부욕과 세상 무서울 게 없는 독선까지 장착하고, 완벽한 성공을 위해 지독하리만치 처절하게 달려왔다.

성공의 기회라고 믿었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방향이 심하게 틀어졌지만, 그는 후회 대신 독기를 품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린다.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한 황인엽은 나라에 떨어진 오수재를 향해 손 내민 로스쿨 학생 ‘공찬’ 역을 맡는다. 따뜻한 청년 공찬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남다른 공감력의 소유자

다. 굴곡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도 운명이 뒤돌린 아픈 과거가 있다.

뒤편의 사건에 휘말려 로스쿨 겸임 교수로 밀려난 오수재와 운명적으로 만나면서 변화를 맞는다.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나락으로 치닫는 오수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공찬. 서현진과 특별한 로맨스 케미를 선보일 황인엽의 설레는 변신에 이목이 집중된다.

수석이가 필요 없는 ‘베테랑’ 연기 고수 허준호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그가 맡은 TK로펌 회장 ‘최태국’은 욕망에 충실한 인물이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선악의 경계를 거리낌 없이 넘나드는 인물이다. 속내를 감추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오수재를 곁에 두고 지켜보는 중이다. 팽팽한 대립각을 세운 오수재 역의 서현진과 맞어내는 불꽃 튀는 연기 시너지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 오수재인가’는 ‘펜트하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하고 ‘사의 찬미’를 통해 세밀하고 감각적인 연출로 호평받은 박수진 감독과 신에 김지는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뉴스스

허재·홍기환, ‘불낙사건’ 이후 ‘화해’



MBC TV 예능 ‘안싸우면 다행이야’가 3주 연속 동시시간대 월요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정상을 지켰다.

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님스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안싸우면 다행이야’는 전국 시청률은 5.7%를 기록하며 월요 예능 시청률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날 방송에서는 허재, 김병현, 전태풍, 하승진의 자급자족 라이프의 둘째

날 모습이 그려졌다.

하승진이 꽃게찜 양념을 완성시키는 장면은 시청률 7.6%를 기록, 최고의 1분에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허재와 하승진이 매콤함을 두고 고춧가루와 고추장으로 언쟁을 벌이며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지난 2013년 허재가 전주 KCC 이지스 감독으로 재직하던 시절 ‘블록(block)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였던 홍기환 전 KBL 심판이 깜짝 방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두 사람의 언쟁은 ‘이게 불낙(block)이야’라는 밈(meme)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허재와 홍 전 심판은 이날 8년 만에 제대로 화해했다. 허재는 홍 전 심판에게 ‘조던 님은폴 도라지’를 품은 냄비밥과 장어구이, 그리고 특제 불낙전골을 대접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풍겼다.

한편, ‘안싸우면 다행이야’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MBC에서 방송된다.

강한나, KBS2 ‘붉은 단심’ 출연

배우 강한나가 조선의 자유로운 여인으로 변신한다.

19일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강한나는 KBS2 새 드라마 ‘붉은 단심(가제)’ 출연을 확정했다.

극 중 강한나는 엄격한 유교의 교리에 얽매기엔 너무 앞서갔고, 규방에 가두기엔 너무 자유로운 영혼 ‘유정’ 역으로 분한다.

강한나는 드라마 ‘스타트업’, ‘간 떨어지는 동거’, ‘바이트 씬스터즈’ 등 매 작품마다 다채로운 캐릭터와 차진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번 ‘붉은 단심’을 통해 인생 캐릭터를 갱신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붉은 단심(가제)’은 반정 이후 왕이 된 아버지 선종의 뒤를 이어 이태가 조선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시작



되는 픽션 사극이다. 2022년 상반기 방송 예정이다.

‘베놈2’ 39개국 1위... 흥행 수익 2억 8300만 달러 돌파

6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영화 ‘베놈 2 : 렛 데이 비 카니지’가 한국을 포함한 39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베놈 2 : 렛 데이 비 카니지’는 전 세계 흥행 수익 2억 8300만 달러(한화 약 3351억 원)를 돌파한 데

가운데 국내에서도 6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115만 관객을 돌파했다.

한편 영화의 흥행과 함께 공개된 이색 컬래버레이션도 화제다.

‘Show Me The Money 9’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래퍼 머쉬베놈과 컬래버레이션 뮤직비디오 ‘체인지업(Change Up)’을 공개한 데 이어 편

성신수 김정환, 구본길과 함께한 화보, 빌런 히어로 변신 영상을 공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베놈 2 : 렛 데이 비 카니지’는 빌런 히어로 베놈(톰 하디)와 빌런 카니지(우디 해럴슨)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뉴스스